

#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6 JUNE 2017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for June

2017년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상설공연** Sunday Performances in June

2017년 6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 6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une, Every Saturday 3:00 Pm, Museum Auditorium

2017년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제997회

### 녹음방초(綠陰芳草) : 박물관 국악에 취하다

Green Shade and Fragrant Plants :  
Museum Enraptured by Korean Music

06. 03.

---



제998회

### Be the Woods

06. 10.

---



제999회

### 황귀자의 우리 전통춤과 한국가곡의 만남 그리고 이야기1

The encounter between Korean Dance and Songs  
by Hwang Gui-ja

06. 17.

---



제1000회 특별공연

### 신영희와 함께하는 우리민속한마당

1000th Special Stage Kor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with Shin Younghee

06. 24.

---

#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6월 일요일 열린민속무대

Performances for June, Every Sunday 2:00 pm. Museum Courtyard

2017년 6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제416회

“살판”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 판이오!

'Sallpan' To be or Not to be!

06. 04.



제417회

해설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남사당 풍물놀이

'Namsadang Nori'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06. 11.



제418회

과천무동답교놀이

Gwacheon Mudong Dapgyo Nori

06. 18.



제419회

전통국악활성화 프로젝트

‘풍장소리’

The project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ation Pungjang Sori

06. 25.





冰凌雪融自無塵  
乙酉年冬月  
畫於神州

素心寧耐冷  
晚節本全暇  
乙酉年冬月  
畫於神州

우리민속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한마당



# 녹음방초(綠陰芳草): 박물관 국악에 취하다

Green Shade and Fragrant Plants : Museum Enraptured by Korean Music

2017. 06. 03.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녹음방송의 계절에 한국 음악에 취해보는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판소리보존회 완주지부와 일본의 진유림 청어람 우리춤 연구회 도쿄 지부가 함께 한다. 고제 가야금병창 ‘공도라니’를 시작으로 대금산조, 허튼법고, 판소리, 남도민요 등 풍성한 볼거리로 준비되었다. ‘공도라니’에서는 고제의 우직함과 화려함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물허벅, 여러 악기,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민요에서는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허튼법고는 일정한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추는 흐트러진 춤으로 즉흥성을 볼 수 있다. 단가는 판소리를 하기 전에 부르는 짧은 노래로, 사철가와 광대가, 고고천변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일본의 전통 현악기인 샤미센 독주와 더불어 남도민요를 샤미센의 반주에 맞추어 불러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This concert is a collaboration between Wanju branch of Korean Pansori Preservation Association and Tokyo branch of Jinyulim Cheongeoram Korean Dance Research Association of Japan. Starting with Gayageum Byeongchang ‘Gongdorani’, audiences can enjoy a lot of spectacular attractions such as Daegeum Sanjo, Heoteun Beopgo, Pansori, Namdo Folk songs. The splendid and honest sound is expressed in Goje styled ‘Gongdorani’. Human voice in Folk songs is harmonized with the sounds of Mulheobeok of Jeju Island and several instruments and makes audiences delight. Heoteun Beopgo is improvised dance departed from the standard pattern. A short song performed before Pansori is called Danga. The song of four seasons, a clown song, a nature song express the beauty of nature and the joy of lif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Japanese string instrument Shamisen solo, it will be a more meaningful stage by singing Namdo folk song along with the accompaniment of the shamisen.

## 공연순서 Program

- 01 가야금병창 – 단가 ‘공도라니’ Gayageum Byeongchang : Dan-ga ‘Gongdorani’
- 02 원장현류 대금산조 Daegeum Sanjo, Style of Won Jang-hyun
- 03 민요(상주함창, 오돌또기, 함양양잠가) Folk songs : Sangju Hamchang · Oddoltoggi · Hamyang Sericulture Song
- 04 허튼법고 Heoteun Beopgo
- 05 단가 – 사철가 Dan-ga : The song of Four Seasons
- 06 판소리 – 단가(광대가), 수궁가 중 고고천변 Pansori : A Clown Song, A Nature Song (Gogocheonbyun in Sugung-ga)
- 07 나가우타 샤미센(아이카타슈유) 연주 Nagauta Shamisen Aikataшыuu
- 08 남도민요 (신벚노래, 에헤야 데헤야, 진도아리랑) Namdo Folk songs : Boating Song, Eheya Deheya, Jindo Arirang



대 표 김나연(사)한국판소리보존회 완주지부 지부장

연 출 최용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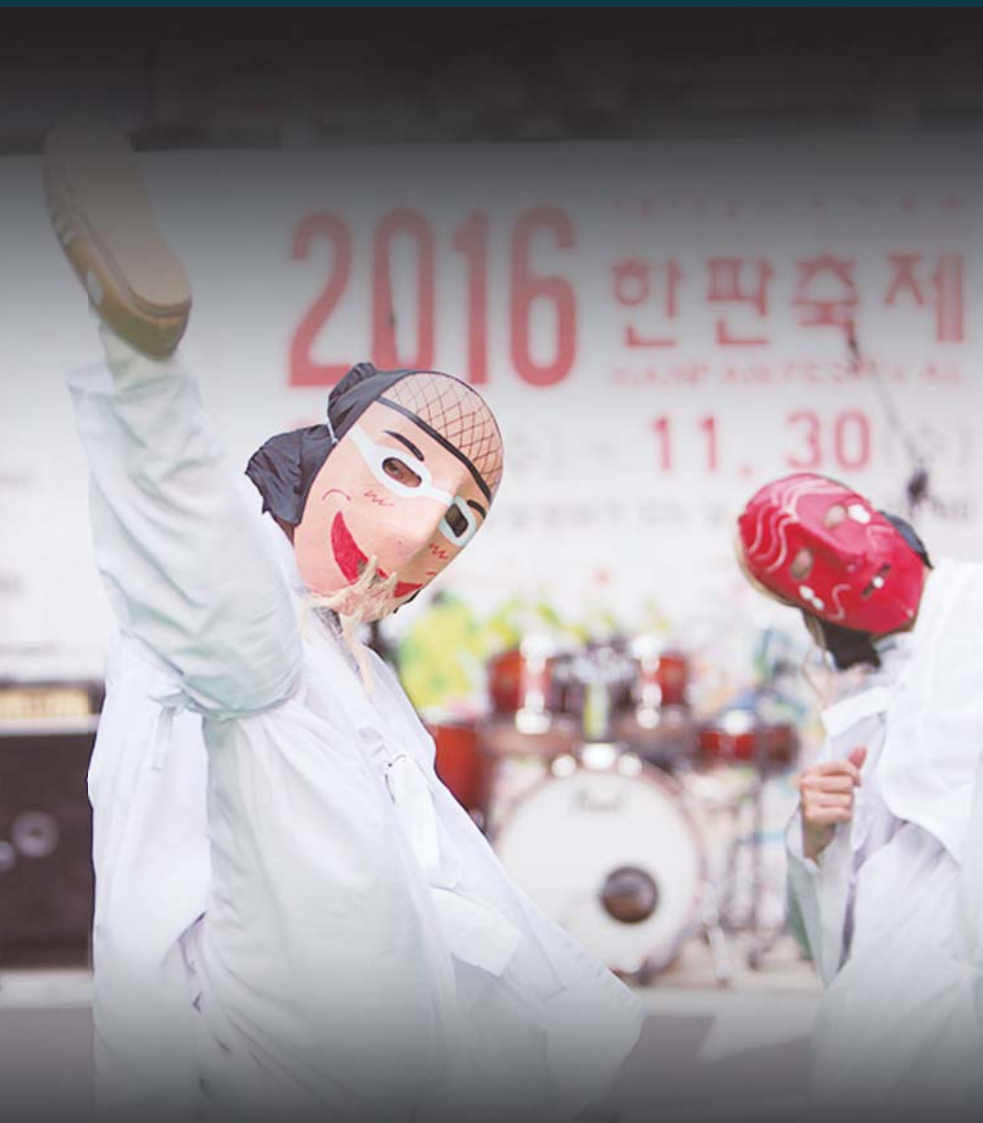
출 연 김나연, 최용선, 정준호, 김보경, 손주현, 전미선, 노은주, 엄민임, 이진용, 진유림 청어람 우리춤 연구회 일본도쿄지부 안유나, 배평순, 하타케야마 유이, 타카하시 가에

# “살판”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 판이오!

‘Sallpan’ To be or Not to be!

**2017. 06. 04.**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2000년이 넘는 역사의 한국 무예 택견으로 구성된 유쾌한 마당극 ‘살판’이다. ‘살판’은 관객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에 따라 극에 등장한 광대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공연으로, 관객이 좀 더 집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대들은 살기 위한 첫 공연으로 아리랑에 맞추어 택견 공연을 선보이고,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로 격파대결을 마련하였다. 전통적인 택견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케이팝에 맞춘 퓨전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전통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택견의 칼 군무와 마살아츠 트릭킹을 융합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에서 관객은 광대들의 생사를 결정지으며 공연은 끝이 난다.

This stage is a pleasant performance ‘Sallpan’ composed of Korean martial arts ‘Taekyeon’ of over 2000 years history. ‘Sallpan’ is a performance in which the life and death of the clowns appeared on the stage are determined according to how much the audience is entertained. So the audience can concentrated and communicate more. The clowns make their Takkyeon performance in tune with Arirang and sep up a showdown with the audience for their lives.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Taekkyeon, the clowns will show the fusion performance along with K-pop presenting the potential for the tradition. Also a splendid group dance and Matial arts Tricking will be continued, At the final stage, the audience determineds the life and death of the clowns and the performance ends.

## 공연순서 Program

- 01 인트로 Intro
- 02 왕의 등장 The appearance of the King
- 03 아리랑 Arirang Arirang
- 04 희망의 격파 대결 Smashing Showdown of a Hope
- 05 살자 살어 Let's live. Let's live!
- 06 반전의 춤 대결 Turnabout in Dancing Showdown
- 07 풍악을 울려라 Play Music!
- 08 제대로 한 번 놀아보자, 살판! Let's play wildly, Sallpan!
- 09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대표 박신영(문화재청 예비사회적기업 ㈜이크택견 대표)  
출연 박신영, 안형수, 이주영, 장인호, 조재현, 김찬영, 김수로

# Be the Woods

2017.06.10.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에서는 유연하면서도 장쾌한 음색의 한국의 관악기를 전통무용, 경기민요, 서양음악과의 작업을 통해 감상한다. 소금은 관악기 중 가장 높은 음역을 가졌으며 음색이 맑고 투명하다. 높고 깨끗한 소리는 동요들과 잘 어울려 소금의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청성곡은 높은 음역에서 연주되는 빠른 곡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악 중 가곡 '태평가'라는 노래의 반주곡을 변주한 곡으로 알려져 있다. 사랑가는 춘향가를 모티브로 삼아 사랑의 감정을 피아노와 대금으로 전달해주고자 한다. 별후광음은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OST'로 이번 연주로 대금과 신디사이저 협업을 볼 수 있다. 생소병주는 단소와 생황의 이중주로 이번 공연에서는 영산회상의 세 번째 곡인 세령산을 선보인다. 긴아리랑은 아리랑 중 가장 길고 느리게 불리는 노래로 비장미가 뛰어나다. 소고춤과 설장고는 농악에서 기원한 춤으로 활동적인 몸짓으로 신명을 풀어낸다. 대금산조는 장구반주에 맞춘 독주로 기교 어린 연주 속에 긴장과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In this stage, Korean wind musical instruments of flexible and exciting tone are performed through works of traditional dance, various folk song and Western music. Sogum has the highest range of Korean wind instruments and the tone is clear and transparent. The high and clean sound is accompanied by songs for children and represents the beauty of Sogum. Cheongseonggok is a fast song played in a high range. It is known as a variation of a song accompanied by 'Taepyeongga'. Love song motivated from Pansori 'Chunhyangga' is a duet of piano and Daeguem presenting feeling of love. Byulhugwangeum, the original sound track of Love in the Moonlight is played with Dageum and synthesizer. Saengsobyeongju means a duo of Danso and Saenghwang. Seryeongsan is the third part of Yeongsanhoesang. Ginarimag known for its tragic beauty is the longest and the slowest one of Arirang songs. Sogo dance and suljanggu are originated from Nongak, and they are show an active choreography. Dageum sanjo is a solo ensemble accompanied by janggu, and audience can feel tension and excitement in a skillful performance.

## 공연순서 Program

- 01 소금합주 · 파란마음 하얀마음, 새싹들이, 너의 의미 Sogum Ensemble
- 02 청성곡 Cheongseonggok
- 03 사랑가, 별후광음 Love song, Byulhugwangeum
- 04 생소병주 세령산 Seryeongsan : A duet of Saenghwang and Danso
- 05 긴아리랑 Ginarirang
- 06 소고춤 Small drums dance
- 07 설장고 Seoljanggo
- 08 대금산조 Dageum Sanjo



대표 신비성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대금산조 이수자, 팔색조 국악연주단 음악감독)  
출연 이봉교, 주진희, 박진경, 김정영, 류석현, 원지현, 중원초등학교 재학생

# 해설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남사당 풍물놀이

'Namsadang Nori'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7. 06. 11.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쉬운 해설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우리나라의 전통예술 '남사당 풍물놀이'다. 첫무대는 사물가락에 축원과 덕담의 내용을 담아 부르는 소리로 관객과 연희자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비나리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서 판(마당)안으로 풍물패가 들어가서 인사하는 입장굿, 판(마당)을 정화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 곳에 동참할 준비를 시키는 돌림버구가 이어진다. 당산벌림에서는 놀이판의 상모꾼들의 재주가 돋보이며, 오방진 놀이는 다섯 방위(동·서·남·북·중앙)에 회오리 모양의 진풀이를 하면서 부정한 기운과 액살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풍년을 기원하고 재수·소망의 성취를 기뻐하는 풍년굿이 이어진다.

This concert presents the Korean traditional art of Namsadang, which i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easy commentary. The first stage, Binari begins with a song to pray for the peace and well-being of the audience. In the next place, Ipjanggut in which the entertainers enter and greet, Dollimbukku to cleanse the yard and prepare participants to join in gut will be continued. At Dangsang Beollilm, the performers express their outstanding talent. And Obangjin Nori removes the uncertain aura in a whirlwind style at five orientations. Lastly, Pungnyeongut praying for a good harvest and delights in the achievement of luck and hope will be played.



## 공연순서 Program

- 01 비나리(고사덕담) Binari : ritual · words of blessing
- 02 입장굿과 돌림버구 Ipjanggu and Dollimbukku
- 03 당산벌림1 Dangsang Beollim 1
- 04 오방진 Obangjin Nori
- 05 당산벌림2 & 사통백이 & 옆치기 Dangsang Beollim 2 · Satongbaegi · Yeopchigi
- 06 짹짹이와 풍년굿 JjeokJjeoki and Pungnyeongut
- 07 대동놀이 Daedong Nori



대 표 노수환(사단법인 신명나눔 이사장)

출 연 강익정, 정선미, 노영주, 양미행, 김유리, 최영아, 이수현, 손진실, 박윤희, 김경이, 이란지, 김민예, 김진희, 신윤정, 이주원, 노태동, 노태서, 나종이, 윤덕순, 최오균, 하소리, 정시은

# 황귀자의 우리 전통춤과 한국가곡의 만남 그리고 이야기1

The encounter between Korean Dance and Songs by Hwang Gui-ja

**2017. 06. 17.**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 공연은 그리움을 주제로 한국의 전통춤과 가곡이 맞닿는 무대이다. 그리움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슬픔, 기쁨 그리고 희망 등의 복합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공연에서는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춤과 가곡을 번갈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승무', '살풀이', '태평무'는 그와 같은 감정이 내재된 한국의 3대 전통 민속무용이고, '진도북춤'은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명복을 비는 한국의 대표적인 창작 민속춤이며, '경기 검무'는 높은 예술성과 역사성을 인정받는 경기도 지방의 문화재이다. 가곡으로는 '그리운 금강산'과 '그리움'등 오래전부터 불러내려온 주옥같은 곡들뿐만 아니라, '꽃밭의 아버지', '그리운 그대'등 근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작 가곡들도 함께 선곡하였다. 무대 마지막을 가곡 '그리움', '가고파'와 더불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전통춤인 '태평무'로 장식함으로써, 청중과 출연진이 모두 함께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춤추고 노래하면서, 한국의 춤과 가곡의 조화를 실감하는 감동의 무대를 꾸고자 한다.

Based on yearning, this performance is consis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songs. Yearning is emotion which is based on love and is constructed with various emotion like sorrowness, joy, and hope. To express yearning, this performance shows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song alternatively. Korean famous dances- 'Seungmu', 'Salpuri', 'Taepyungmu',- express very well that emotion. 'Jindo-bukchum' is made to show yearning for dead people and it is performed to pray for them. 'Gyunggi-Geommu' is heritage of Gyunggi(region of Korea) which is well known as its artistic movement and eternal history.

From songs like 'Nostalgic Geumgangsán', 'Yearning' which have high quality to songs like 'Father in the flower garden', 'Missing you' which are sung by many people nowadays, audience can enjoy many korean traditional songs. 'Taepyungmu',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would be the final stage, making all the audience and performers dance altogether. It would be touching stage that audience can feel the harmony of Korean dance and songs.

## 공연순서 Program

- 01 진도북춤 Jindo-bukchum
- 02 경기검무 Gyunggi-Geommu
- 03 가곡(그리운 금강산, 그리움) Korean traditional songs('Nostalgic Geumgangsán', 'Yearning')
- 04 살풀이춤 Salpuri-chum
- 05 신작가곡(꽃밭의 아버지, 그리운 그대) New korean traditional songs  
['Father in the flower garden', 'Missing you']
- 06 승무 Seungmu
- 07 가곡(그리움, 가고파) Korean traditional songs('Yearning', 'Want to go')
- 08 태평무 Taepyungmu



대 표 황귀자(명지대 종합예술원 무용과 지도교수)  
사 회 김원필(조선대학교 교수)  
출 연 황귀자, 이종규, 배소연, 최성환, 전명란, 이현열

# 과천무동답교놀이

Gwacheon Mudong Dapgyo Nori

2017. 06. 18.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4호 과천무동답교놀이는 풍물과 무동놀이, 선소리, 전통무용이 어우러지는 총체적인 전통연희 판이다. 답교는 한국말로 다리 밟기라 하는데 건강을 기원하며 다리를 밟는 한국 고유의 세시풍속으로 보름날에 12개의 다리를 건너면 열두 달의 액을 막는다 하였다. 다리를 밟으며 놀아졌던 전통연희 과천무동답교놀이는 타 지역과 달리 정조 능행의 큰 의미, 즉 효행을 기리기 위해 놀아졌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길놀이부터 다리고사까지는 마당 놀이로 앞마당에서 진행하고, 답교쇠놀이춤과 장구춤, 선소리 답교는 무대에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무동답교와 퇴장은 다시 앞마당에서 진행 될 것이다.

'Gwacheon-mudongdapgyonori'(Gyunggido Intangible Heritage No. 44) is the traditional banquet which harmonizes 'Punmul,, 'Mudongnori', 'Seonsori'.

'Dapgyo' which means 'stepping bridge' in Korean is seasonal custom. On full moon day, people cross twelve bridges asking for protection from bad luck. It is different from other traditional banquet, because it is played to inform filial duty of Jungjo(the King of Joseon dynasty). Usually, 'Dapgyo' is played by just stepping. The performance would be played at the front yard from 'Gilnori' to 'Daligosa' and 'Dapgyosoinori-chum', 'Jangu-chum', 'Seonsori-dapgyo' would be played on the stage. Final 'Mudongdapgyo' would be played at the front yard again.

## 공연순서 Program

- 01 길놀이 Gilnori
- 02 당나무고사 Dangnamu-gosa
- 03 우물고사 Umul-gosa
- 04 지신밟기 Jisin-baggi
- 05 다리고사 Dari-gosa
- 06 답교쇠놀이춤, 장구춤 Dapgyosoinori-chum, Jangu-chum
- 07 선소리 답교 Seonsori-dapgyo
- 08 무동답교 Mudong-dapgyo
- 09 퇴장 Wrap-up



대 표 오은영(과천무동답교 상쇠놀이 보유자)  
출 연 임춘희 외 70명

제1000회 특별공연

# 신영희와 함께하는 우리민속한마당

1000th Special Stage Kor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with Shin Younghee

**2017. 06. 2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Museum Auditorium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민속한마당 토요일공연이 1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1994년 1월부터 시작한 우리민속공연으로 소리와 몸짓, 악기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토요일공연입니다. 순간순간 즐거움으로 함께 했던 공연장의 기억을 되짚어보며 1000회 특별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특별공연은 '신영희와 함께하는 우리민속한마당'의 제목으로 사물놀이, 판소리, 창작국악, 한국무용 등 관람하는 모든 이에게 큰 호응을 자아냈던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국악의 멋과 흥, 신명으로 하나 되는 자리로 공연장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s going to hold 1000th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which began in January 1994 is a regular performance on Saturday that can show Korean traditional culture to the world through music, dance and theatrical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as prepared this special performance by recalling the memories of past stages.

Under the heading of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with Shin Young-Hee', today's special performance is composed of works, Samulnori, Pansori, Creative Traditional Music and Dances that made an enthusiastic response to visitors.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opes that visitors from both home and abroad will have a meaningful time to become one with the beauty, excite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 공연순서 Program



- 01 문굿 & 비나리 Mungut & Binari
- 02 판소리 춘향가중 사랑가 Pansori 'Love song' of Chunhyangga
- 03 창작무용 사랑가 Creative dance 'Love song'
- 04 부채춤 Buchaechum (Fan Dance)
- 05 창작타악합주 'Mega Drum' Creative percussion concert 'Mega Drum'
- 06 판소리 춘향가중 십장가 Pansori 'Sipjanga' of Chunhyangga'
- 06 판굿놀이 Pangut Noleum
- 07 진도북춤 Jindo Bukchum (Drum Dance)



**대표** 신영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고수** 신규식(전국고수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사회** 박정곤(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상임이사)

**출연** 류무용단- 류영수, 이재현, 이하늘, 문지원, 이소녕, 문지윤, 김태희, 고효영, 박채원, 안세진, 배지윤, 김혜지, 광개토사물놀이- 권준성, 장지성, 박지웅, 조용성, 최동환, 김윤만, 조용배, 김지수, 박경진, 윤보영

# 전통국악활성화 프로젝트 '풍장소리'

The project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ation Pungjang Sori

2017. 06. 25. Sunday(일) 2:00pm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Museum Courtyard



##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전통국악활성화 프로젝트 '풍장소리'는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현시대의 감각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장구놀이는 호남우도의 화려한 농악가락을 무대화 시킨 공연으로 한국의 장단과 호흡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구성 되었다. 입춤은 한국 무용의 기본적인 몸짓과 선을 통하여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다. 사물놀이는 농악에 사용되는 네 개의 타악기를 무대화한 연주형태로 각 악기의 세련된 흥과 멋이 어우러진다. 판소리 중 널리 알려진 사랑가에서는 소리꾼 혼자 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를 연출하였다. 선반 판굿은 사물놀이에 소고가 추가되어 서서 연주하는 형태로 좀 더 짜임새 있고 재미있는 동선으로 구성되었다. 개인놀이(구정놀이), 부포놀이, 자반뒤집기 등 전통 연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activation project 'Pungjangsori' is a work created by discovering and reconstruct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to suit the senses of modern times. 'Jangunori' was reconstructed so that it could convey the length of Korean music and Korean atmosphere to the audience with the performance of wonderful rhythm of honam-Udo(region of Korea).

'Ipchum' is a dance that audience can feel the beauty and excitement through the basic gestures and lines of Korean dance. 'Samulnori' is a performance of four percussion instruments used in 'Nongak(Farming music)'. Four instruments perform its instrument's original excitement and joy.

'Sarangga' which is well-known love song among 'Pansori', all the people including audience can participate. 'Sunbanpangut' is more changed version of 'Samulnori'. It is constructed more textured and interesting movement by adding 'Sogo(small Korean buk)'. Audience can see all of traditional banquet like 'Gaeinnori(Gujeongnori)', 'Buponoreum', 'Jabanduijipi' in this show.

## 공연순서 Program

- 01 앉은반 장구놀이 - '덩더쿵 장단스타일' Anjeunban-Jangunori
- 02 입춤 - '한국의 멋&흥' Ipchum: Korean excitement and joy
- 03 앉은반 사물놀이 - '구름-바람-천둥번개-비' Anjeunban-jangunori: Cloud, Wind, Thunder, Rain
- 04 판소리 - 춘향가 中 '사랑가' Sarangga-Pansori 'Chunhyangga
- 05 선반 판굿 '전통연희 한마당' Sunban pangut 'Traditional Banquet'



대 표 신만중(풍장사예술단 단장)

출 연 임영호, 안태원, 박건우, 박대권, 도용호, 조수영, 유기영



#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발행인 | 천진기  
총괄 | 김종민  
기획·책임 | 이기원  
연구·기획 | 이인혜, 강경원  
번역 | 이인혜, 이혜원  
발행일 | 2017. 6  
발행처 | 국립민속박물관  
디자인 | 주대원인쇄



#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우03045)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Korea (03045)

전 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http://www.nfm.go.kr)



##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05~08월 주말·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 금, 토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1월 1일, 설 연휴 다음날, 추석 연휴 다음날 입장료 무료

※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